

외국에서의 수의간호사의 현실과 한국적인 “수의간호사”의 역할 및 미래

▣박우대 / 서정대학 애완동물과 교수

1. 서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애완동물 시장은 급격히 양적 팽창을 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수의과대학은 4년제에서 6년제로의 학제가 변환이 되었으며 2004년 처음 개편된 학제에 맞추어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많이 발전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일반 동물병원들은 새롭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고가의 의료장비, 전문성을 표방한 진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중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서는 수의 간호사, 수의 매니저, 리셉션니스트, 동물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진료 보조, 검사, 용품 판매, 청소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전문화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업무의 생소함과

과중으로 인해 많은 이직율 및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결여되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방안은 전문화된 교육 및 직업에 대한 전문성의 확립으로, 이에 필요한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상황을 제시하여 가장 한국적인 수의 간호사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2. 수의 간호사의 정의와 업무

〈정의〉

수의 간호사란 동물병원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수의사를 도와 진료 보조, 임상병리 검사, 입원환자 관리, 수술 보조, 처치, 실험, 동물 사육 및 위생관리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명칭〉

VT(Veterinary Technician) : 미국에서 수의 간호사를 일컫는 용어

VN(Veterinary Nurse) : 영국등 유럽에서 수의 간호사를 일컫는 용어

AN(Animal Nurse) : 위의 VN과 혼용해서 사용

AHT(Animal Health Technician): 일본에서 사용되는 명칭 중 하나로 “동물건강관리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름 자체는 상표 등록 되어 있음

현재 한국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 간호사, 동물 간호사라는 명칭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 제25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의사법 등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이 동물 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 된다.

(업무범위)

- 미국

- Physical examination and patient history
- Client education
- Caring for hospitalized patient
-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and vaccines
- Clinical laboratory procedures
- Dental prophylaxis
- Radiology
- Anesthesiology
- Surgical assisting
- Office/Hospital management

- Biomedical research

3. 수의 간호학의 역사적 배경

(미국)

미국은 1950년대 초 동물병원에서 필요에 의해 사람들을 고용해 병원 자체 내 교육을 하기 시작 하였으며 1960년대 초 처음으로 학문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나타났고 현재는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

1961년 영국 왕립 수의과대학에서 처음으로 모집, 양성, 등록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1965년에 영국 동물 간호사협회(BVNA)가 설립되었고 1984년 명칭이 수의 간호사(VN)로 개정되었다. 국가 자격 인증은 1986년 The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s에서 처음 인증되었으며 1991년 VSA schedule 3(일종의 수의사법)에 “수의 간호사는 어떠한 치료 또는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검사 또는 수술을 고용한 수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반려동물에게 행한다”라는 조항을 삽입 하였다.

(일본)

1960년대 故山崎良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고 난 후 처음 일본 내에 도입을 시켰으나 본격적인 교육은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 이루어 졌다.



4. 수의 간호학의 교육제도

〈미국 및 유럽〉

현재 교육 연한은 최저 2년으로 2년 과정의 Collage를 졸업하면 수의 간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가 있으며 합격한 후 “VN 또는 VT”의 명칭을 사용할 수 가 있고 4년 과정의 University를 졸업하면 학사 학위와 함께 시험을 합격한 후 Veterinary Technologist (수의 간호(또는 기술)학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다양한 교육 기관이 존재하는데 전문학원 및 전수 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통신교육 등 다양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연한은 최저 2년에서 4년으로 각 교육 연한 및 근무연한에 따라 3급, 2급, 1급 등으로 분류된다.

5. 자격 인증 방법

〈미국〉

졸업 후 주 단위 자격시험을 통과 해야지만 취업이 가능하다.

〈영국〉

졸업 후 BVNA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 후 자격 인증

〈일본〉

현재 국가 자격증은 없으며 JAHA, 일본 위생 간호사 협회등 총 8개 단체에서 각각의 인증 시험을 치루고 있다.

6. 취업 범위

주 취업 분야는 동물병원 이지만 그 이외의 관련 산업체로 다양한 취업의 형태를 보여 주는데;

- Teaching
- Military service
- Human societies
- Herd health managers
- Industry
- Biomedical research
- Diagnostic laboratories
- Zoo/Wildlife medicine
- Veterinary supplies sales

분야로 취업을 한다. 특이한 점은 인간과 동물과의 중재자 역할 및 공중위생의 한 분야를 담당한다는 것을 강조 하는데 이는 직업의 당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

7. 사회적 지위와 급여

1999년 AVMA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ULL TIME인 경우 \$10,717~\$40,000/Y로 경력자인 경우 \$81,000까지 받고 평균 \$24,323를 받는다.

[호주에서 근무하는 수의 간호사 현황]

그림1. 호주 수의 간호사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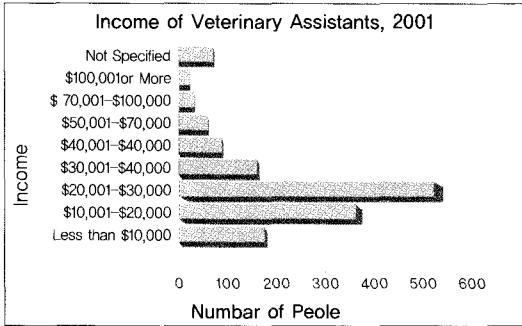


그림3. 호주 수의 간호사의 고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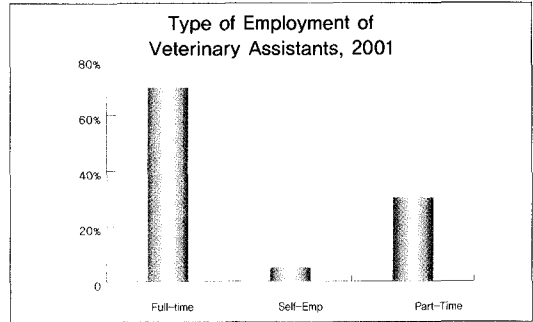


그림2. 호주 수의 간호사의 근무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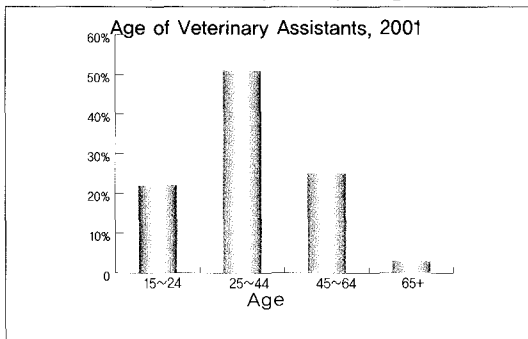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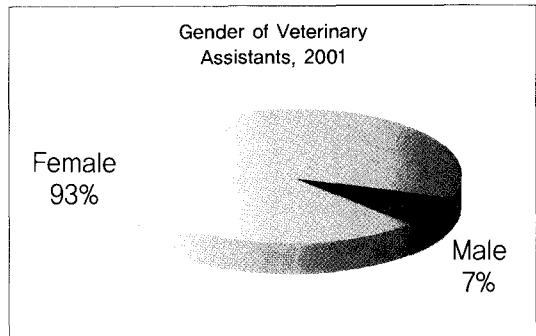


그림4. 호주 수의 간호사의 성별



일본은 현재(1999년 기준) 18,000명 정도의 수의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초봉 180~300만엔/Y이며 중간 정도의 연차일 경우 400만엔 정도를 받는다.

8. 수의 간호사의 업무 제한

(미국)

수의 간호사는 "A veterinary technician does not diagnose, prescribe, or perform

surgery, or engage in any activity prohibited by the state practice act. All veterinary technicians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a veterinarian" 이라고 명시되어 수의사의 지시 하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수의 간호사는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수의사의 감독하에 간단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백신 클리닉의 운영 및 수의사를 대신한 가정 방문 치료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아직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수의사법 제 17조, 18조 항에 의거해 진료 행위, 약의 처방 행위, 조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9. 한국 수의간호사의 현황

한국은 수의료분야의 괄목한 발전을 이루고도 수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아직 까지 제도권 내에서 배출 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동물 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 표방한 사설 학원 4곳과 5~6곳의 전문대학 및 2개의 대학교 등이 있으며 대학에서는 아직까지 졸업생을 배출해내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통일이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교재와 시설 또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에 2004학년도 애견학과 신설 요청은 108개교로 향후 가장 전망 있는 분야로 인식되어 많은 대학에서 신설되고 있고 향후 신설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의간호아카데미 등 몇 개의 수의간호 사설 학원 등에서도 수의 간호사를 배출해내고 있다.

10. 결론

한국은 수의 간호학이라는 분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엄밀히 제도권내에서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신종 학문분야이다.

수의료 및 애견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일수록 수의 간호학의 발전은 눈부시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치와 자부심은 상당하다.

크게 수의 간호학의 패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럽형과 일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형은 수의 간호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수의학에서의 상당부분을 수의 간호학이 담당하고 인의 병원에서처럼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잘 분리되어 있다.

유럽형 또한 영국형과 미국형으로 분리 할 수가 있는데, 영국형은 수의 간호사가 일정한 학위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이 주어지면 간단한 수술을 집도할 수 있고, 병원 내에서 단독적인 백신 클리닉을 운영하며 수의사를 대신하여 가정 방문 치료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수의 간호사 윤리 규정을 따르며 신분을 보장하고 자신의 행동과 직업에 대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형은 주사나 혈관내 카테터 장착, 수술, 단독 백신클리닉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인 업무의 범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협소하다.

그러나 주사나 카테터 장착, 수의사의 부재 시 응급처치 등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어 실제적인 업무의 범위는 협소하지 않다.

위의 두 경우 다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 하며 인원에 대한 관리 감독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형은 아직까지 수의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현재 교육도 많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제도 다양하며 교육 커리큘럼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간호 및 훈련, 미용 등이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또한 수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수의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률이나 규약등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인증을 해주는 기관도 다양하여 이를 통합하는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수의간호사의 동물병원에서의 업무는 주로 보조자의 역할로서 병원 위생관리, 수술보조, 판매, 검사 등이 주역할을 담당한다.

위의 두 경우는 같은 수의 간호학 분야이지만 시작이 다르고 시대적 상황이 달라 차이가 난 경우이다.

유럽형은 수의 간호학 분야가 수의사회에서 주관되어 시작되었고 교육의 질, 자격 요건 등을 수의사의 요구에 맞게 변형되어 왔다.

일본형은 초기 도입자가 비수의사로서 일반 전기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의 원장이 교육을 시작하여 약 15년의 비활성기를 거친 후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분야를 접목 시킨형태로 발전 하였다.

한국 내에 맞는 수의 간호사를 양성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의 여건상 어떤

형태가 한국에 맞는 수의 간호사의 상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선례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현재 수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인증하며, 교육과정의 통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에 많은 애완동물학과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고 현재의 양상이라면 2006년 정도면 벌써 수의 간호사라고 자체적으로 이름 붙여진 인력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의 간호학의 전체적인 틀을 짤 수 있는 대한수의사회 산하 수의 간호학 교육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 조직을 토대로 더욱 심도 높은 조사를 통하여 수의 간호사의 명칭, 업무 범위, 교육 커리큘럼의 통일, 인증 방법, 배출 인원에 대한 관리 및 절대 수 조절, 관련 법규의 제정 등을 하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수의 간호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조금이라도 수의사의 요구에 맞게 수의 간호사가 탄생되고 인증기관 또한 수의사회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대 수**

본 제언은 대한수의사회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